

건축 초대석

Invitation to Achitecture



신 항 균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성균관대 수학과 졸 / 성균관대 대학원 석, 박사(이학) / 공
군사관학교 수학과 / 우석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서울교육대학 수학교육과 /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교
수 / 서울교육대학 교무처장 / 2011.8.~서울교육대학 총장

건축의 사회적 지평확장을 위해

이제 우리 자동차나 휴대폰, 조선 등의 세계적 진출, 동·하게 올림픽 및 월드컵 유치, G20 주관, 최근의 k-pop 열기 등은 바로 한국인의 힘의 결과이며, 수많은 국제적 인사들의 잦은 한국 방문은 곧 국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건축 또한 기술이나 건축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길, 환경과 녹지, landscape, 지속가능성 등 포괄적 이슈를 떠날 수 없다. 건축 체계에서도 강제적 규제에서 재량적이고 창의적인 틀을 수용하고, 각 지역민의 삶을 기준으로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건축사들도 그 책임과 관리, 선도할 역할은 물론 의식적 유연성과 함께 보다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회 및 건축사지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먼저 사회 지도층, 저명인, 나아가 일반인에게까지 적극적 소통을 도모하여 그들의 공유공간을 넓히며 개별을 넘어 공론적 건축 담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지금껏 수없이 찾아 가고 불려(?) 다니던 행태가 머지않아 진정한 '실력'으로 그들 스스로가 건축문화의 큰 가치를 위해 우리를 찾아 올 기대도 해 본다.
작은 파장이 큰 울림이 되도록 기원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다. 그러나 문화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여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다거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게다. 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 실행과 체험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의 의식과 교육, 스스로의 학습과 경험이 중요함은 자명하다.
'건축문화'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유도하고 있고 교과서에까지 그를 다루고 있다 한다. 이에 어린 인재를 키워 낼 교직 양성의 총책임자와 먼저 그에 대한 논의를 도모해 본다.

9월 6일 오후, 여름의 늦 자락에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서울교육대학교에 들어섰다.
주변도심의 번잡함이 교문을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얘기소리가 들리고 걸어 다니는 모습이 너무 다정하다.
도심의 열린 그린 캠퍼스다.
저층 건물들이 조화롭게 서있고 그사이 녹지와 나무들이 시원하다.
중앙 운동장에서 보는 동그란 하늘은 가슴을 열리게 하고 평화롭다.
시간에 맞추어 총장실에 들어섰다.
인자한 선생님처럼 포근한 웃음과 넉넉한 목소리로 총장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였고 정갈한 총장집무실은 캠퍼스가 시야에 들어와 아늑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교직을 성직으로 여기며 후학의 교육에 매진해 오신 신항균 서울교육대학교 총장님께서는 건축, 교육 등 전반에 탁월한 철학과 상식을 갖추고 계셨고, 그 진솔한 이야기가 캠퍼스의 시원한 바람처럼 마음을 적셨다.

박찬정 :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면담의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항균 :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처음이라 조심스럽고 긴장 됩니다.

박 : 최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하고, 편하게 그냥 평소의 생각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간략한 학교 역사와 함께 총장님과의 관계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신 : 네. 해방 후 경기공립사범학교로부터 출발한 학교로 1946년부터 약 6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2년간 여중에서 수학 교육을 담당하였고, 1988년부터 우석대학교에 재직하다가, 97년부터 현 서울 교육대학교로 부임해 지금까지 15년간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박 : 키도 크시고 건강해 보는데 직무 활동을 위한 건강관리, 혹은 취미 생활은?

신 : 등산을 주로 하고, 아침 헬스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지인들과 골프도 하구요.

박 : 키나 체격으로 보면 로우 핸드캡퍼로 보이는데요.

신 : 보통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반자들은 제가 잘 못 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웃음)

박 : 총장 취임에 따른 각오나 경영철학, 교육이념이 있으시면?

신 : 저희 학교 교훈은 "내 힘으로, 한 마음으로"입니다.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열린 생각, 인간을 생각하는 바른 교육이 우리 학교의 신념이고 목표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는 나름의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장은 이제 경영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저는 감성 경영을 중시합니다. 따뜻한 경영을 하려 합니다.

총장 선거 시의 모두도 모두가 행복하고 다 함께 발전하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서울교대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느끼게끔 밑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구만열 : 총장도 직접선거로 선출하죠?

신 : 네, 직접선거죠.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1차 투표의 1, 2등이 다시 2차 투표하는 방식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다행히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로 당선 되었습니다.

박 : 정말 결과가 총장님의 인기나 지지를 말해 주는군요. 15년간의 성과가 결과로 나타났네요.

신 : 감사합니다. 그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일 처리를 해왔는지를 구성원들이 기억해 주셨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선거 운동은 잘 되지 않습니다.

박 : 현 교육환경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그 대응 방안은?

신 : 교직은 현실의 선호도보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성직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들의 단체나 노동조합 같은 것은 아직은 낯설은 감이 있어요. 직업적인 면에서 취직이 잘 되는 측면이 부각됨으로서 그런 성직 같은 면이 약화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교직은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교육효과나 교육자로서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박 : 건축사의 경우도 그런 공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논리가 강해지면서 건축이 자꾸 부동산이나 하나의 구축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되기 쉬운데 저희들도 환경이나 삶의 기반 등 보다 본질적인 측면이 되살아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식시키기엔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박 : 현 캠퍼스의 공간 환경 평가, 혹은 아쉬운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신 : 이곳 서초동으로의 이사는, 77년이었고 근방은 허허벌판이었죠. 당초 캠퍼스 건축실체는 김수근 선생님이 하셨는데, 교육대학이기에 가장 한국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전벽돌이나 기와 등의 흑백 색조 등 한국적인 멋과 색깔을 잘 담아내어 당시 '건축작품상'도 받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지요. 지금은 거의 철거되었고, 학교 규모가 커짐에 따라 큰 그림 없이 재건축과 필요에 따른 개별적인 증축이 이루어지면서 그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살려내지 못한 게 참 아쉬워요. 최근에 세워진 건축도 있으나 제가 보기엔 다소 부조화한 것 같아요.

박 : 설사 제한된 예산이나 환경이라 하더라도 좋은 건축, 환경을 만들겠다는 합의된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나은 결과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학생들 인성교육에도 좋을 것 이구요. 하고나면 늘 아쉬울 때가 많지요.

구 : 가 보신 캠퍼스 중 인상적인 곳을 들려면?

신 :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캠퍼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시각이겠지만, 분위기가 삭막하지 않고 건물들이 잘 조화된 것 같았습니다.

박 : 요즘 사회적으로 교직이 최고 인기인데, 그에 따른 학생들의 입학 행태, 의식, 수업 태도 등의 변화는?

신 : 인기가 있는 것은 취직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래도 취직이 용이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즈음은 월급 많이 받고 대우를 잘 받기보다 자기 시간이 많은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방학이 있고 출, 퇴근 시간이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안





정적인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로 보입니다. 다만, 교직 이전의 자기 철학이나 신념 등은 늘 지켜야 할 기본인데... 학생들은 대체로 우수하고 의식도 건강한 편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지요. 항상 교직으로서의 보람이나 가치를 잘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그를 위해 모범적인 교직 생활이 되도록 교수들부터 조심합니다. '사제동행' 아무래도 이곳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좋은 것은 배우고 부족한 것은 반면 교사로 삼아 학생들이 유심히 보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익혀 나가도록 해야죠.

박: 저학년 교직에 여성 비율이 압도적인 현상인데요.

신: 우리 학교도 한 쪽 성의 비율이 75%를 넘지 않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더라도 임용교사 시험 시는 남성 비율이 9% 내외로 낮지요. 심각합니다만 외국의 경우는 더 심해요. 남교사가 자기 학교에 배정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공무원 임용제에서는 양성 평등제를 기준으로 한 성의 경우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유도 하죠. 교사 임용제에서도 양성 평등제를 적용하자는 논의는 있으나 여성단체 등의 반대가 있고, 여성표를 의식하여 적용되고 있진 못 해요. 다른 분야에서는 역으로 여성 비율을 정한 쿼터제를 하고 있기도 하죠.

구: 역사적으로 많은 외국 학교나 단체 등과의 교류가 활발한 편인데, 현재 주교류 내용과 행태는 어떤 것인지요?

신: 학술 교류, 교수 교환, 약 2주에서 1개월간의 단기 방학을 이용한 학습이나 관련 활동들, 교환 학생 교류 등등이죠. 다른 세계의 이해와 폭 넓은 문화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커 가도록 지원하고 유도하지요. 대학 4년 과정 중 한 학기 정도는 해외에서 수업을 받고 국내 봉사 활동은 물론, 해외봉사활동을 하면서 세계인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든 행정도 전자기기로 처리하고 수업 역시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동영상 등을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외국의 유명 강사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열 계획입니다. 세계 약 18개 대학과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요.

박: 교직에 계시니 개념적이기는 하지만, 혹시 '건축'에 대해 생각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신다면?

신: 평소에 그리 깊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릴 때 어떤 드라마에서 건축사가 아파트 같은 것은 그리 설계할 의도는 없었는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건축 직업이란 것이 그런 생계 수단만은 아닌 것 같은데... 산에 올라가서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반면 관광지에서 한옥의 멋진 모습이나 주변과 잘 조화된 휴양시설을 볼 때면 머물러 살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자연스레 건축에 대한 눈이 떠지는 것 같습니다.

박: 네.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급하고 여유 없는 생활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겠지요.

그래도 이젠 앞으로 본질을 제대로 보고 그런 구축물 뿐만 아니라, 공공환경이나 경관 등 보다 포괄적인 환경의 개념으로 가꾸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 네, 그래요!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박: 얘기 나온 김에 그럼 '바람직한 건축'이란 어떤 것일까요?

신: 제겐 어려운 질문이네요. (잠시 생각하시다가) 얼마 전 어느 특집 프로에서 본 게 생각납니다.

예전 우리네 화장실, 해우소를 가지고 대상을 수상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인간의 배설물이 다시금 인간과 동, 식물의 생명을 살려내는 생태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을 담았다고 해요. 그것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구요. 그런 건축이면 정말 바람직한 건축이 아닐까 합니다.

이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우리의 생활, 사회의 구성 등 전체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움직이며 변해 가는가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건축 분야도 좀 더 활발히 그런 활동을 하셔서 일반인들이 보다 나은 건축적 이해를 한다면 좋은 건축 환경을 만드는데 바로 큰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 정말 핵심적인 지적을 해 주셨네요.

구: 덧붙여 사회적 직능으로의 '건축사'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신: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건축사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건축 관련 설계나 계획 업무를 주로 하시는 전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도 하시는 것 같고요. TV드라마에서 건축

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건축과 경쟁률이 높아진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건축관계업을 하는 친구들로부터 자격증 따기가 무척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 : 네. 주 업무는 그렇습니다만, 아까 얘기되었다시피 건축이 보다 확대된 개념이고 시대가 많이 변한만큼 저희들의 직능적인 변화도 불가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단지 개별 직업상의 업무만이 아닌 공공에 대한 책임을 대신하는 역할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총장님은 물론, 주변에 대해서도 건축에 대한 개념, 이해의 폭이 달라지도록 힘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 지금 사시는 주거 형태는 무엇이며, 가족 구성과 관련하여 그 만족도는?

신 : 아파트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도시 기능적인 것이나 건축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이전 도시 생활의 보편한 형태로 볼 수 있겠지요. 만족도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의 가족도 대체로 그리 생각하는 편이구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사이의 자연스런 관계 증진이랄까 하는 측면에서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박 : 평소에 건축·도시적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셨다면 어떤 것에 주목하시는지요?

신 : 네, 저는 교직에 오래 있다 보니 솔직히 구체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의, 식, 주거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이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주'에 대한 의식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수도권이나 서울에서의 집 문제를 들여다보면 과연 경제 성장과 함께 정말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올바른 정책적인 연구와 수행이 잘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모두의 의식 전환, 먼저 사회지도층부터의 공적 의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가끔 방송이나 지상언론에서도 좋은 건축 사례를 보여 주어 저도 조금씩은 배우고 있습니다만, 건축사 여러분들이 그래도 앞장서 사회 계도나 모범적 실천 사례를 알기 쉽게 많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구 :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 측면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살아오신 주거나 환경, 건축물 중 감흥을 받으신 적은?

신 : 5~6년 전, 미국 애리조나 주에 교환교수로 갈 때 가족회의에서 주거를 어디로 할까 논의하였는데 모두 단독 주거를 원하였어요. 거긴 비교적 주거 비용이 싸서 방이 4개, 응접공간이 3곳,

수영장까지 달린 집을 구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족 위주의 생활 패턴이어서 마당의 진디도 함께 가꾸고 집 관리나 식사 등 온 식구가 같이 일하고 접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정말 가족 간이나 자연과의 교류가 풍부해져서 큰 행복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때의 기억으로 퇴임 후 전원생활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곤 하죠.

박 : 국외의 건축·도시에서 좋은 느낌을 받으신 경우는?

신 : 주변 분들이 파리나 이태리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저는 도시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뉴욕 같은 도시 이미지, 빌딩 숲 사이의 좋은 공간에서 살아 숨 쉬는 느낌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골의 전원, 고전적인 분위도 좋으나 맨하탄의 계획된 정연한 느낌, 100여년 정도의 역사이지만 워싱턴 D.C에 서의 신, 구 건축물의 조화로움 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박 : 사람마다 다양한 게 당연하고 또 재미있지요. 사회적, 도시적인 좋은 공간이나 환경에 보다 더 관심이 있으셔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학교내에서 건축 관련 경험이나 업무 등을 다루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 : 어느 학교에서나 유사한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만, 교수들은 자기의 독립된 공간에서 일하고 생활하다보니 자기 아집이 심한 분들이 왕왕 있어요. 혼자 생활하는 버릇으로 인해 다른 몇 사람과 있으면 불편해 하기도 하고 어울려 공부하는 것을 낯설어 하기도 해요.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박 : 좋은 사례네요. 건축설계 시 대체로 건축주로부터 최대의 견해를이나 용역을 강요받아 사회적 배려나 공공 공간 등 남과 사회를 배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전 그런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부여해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도 교대는 물론, 주변에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 당연히 그러하겠습니다.

박 : 건축·도시 분야, 건축사 업무, 에너지나 환경 분야 등에서 가장 불만족스런 사항이 있으시면?

신 : 제 스스로도 아직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뭐 합니다만, 우선은 에너지 절약, 환경 보존 등에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습관화가 되지 못 한 점이 아닌가 합니다.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하였지만... 특히 공공시설이나 장소에서의 낭비나 훼손은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이번 폭우 등 특별한 상황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대충하는 부실한 일 처리죠.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선 건축행위에 대한 신뢰가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죠. 온갖 부정행위도 여전하고... 건축,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큰 경제적, 사회적인 가치로 인한 역설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같이 급격한 성장과 물질적인 힘에 따른 무한 경쟁, 속도지상주의, 성과주의 같은 것이 더 심해 졌죠. 인간 세상이 어디나 비슷한 데가 많아 타 개발도상국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박 : 저도 부끄럽군요, 각자 자기부터 힘써 자기 직분과 기본을 지켜 나가려는 마음과 용기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럼, 보다 나은 사회 환경을 위해 우선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은?

신 : 아무래도 올바른 정책과 의지, 그리고 그를 실행할 효과적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꼭 가야 할 길이라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입안이나 제도 설정이 필요하고, 또한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꾸준히 헤쳐 나갈 온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적실한 방책이 있어야겠지요. 그것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가 먼저 그리 해 나가는 게 사회의 주인이고 선진 시민 의식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진정한 친구가 적어진다고 하는데, 건축사님들도 먼저 많은 사회 친구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박 : 돌릴 것도 없이, 솔직히 저희들도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친구나 동료 의식이 약해진 게 아닌가 의심할 때도 많아요. 이런 자리도 짧지만 좋은 관계를 위한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 : 좀 전의 말씀 중에도 느껴졌습니다만, 먼저 의식적 관점이 높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문화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평가하십니까?

신 : 사실 '건축문화의식'에 대한 개념이 잘 서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에 대한 보다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나 사실상 좋은 건축을 만들려는 의식...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부동산이나 재화적인 인식이 여전하고, 외형 위주의 논의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얼마이고, 규모가 어떻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항이 먼저죠.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려니 하지만 크게 감동이 되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인 건축사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발휘해 주시고 여러 어려운 여건이라 하더라도 묵묵히 전문인의 길을 가는 의지와 힘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 오히려 저희가 답아 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남 탓 할 때가 아니라 먼저 자기를 되돌아 봐야 하는 것이 도리겠지요!

구 : 전인적 교육자 양성이 주요 이념인 바, 문화 및 환경의식의 고양을 꾀 할 건축문화자산투어, 환경적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실 의향은?

신 : 확고한 프로그램으로는 아직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공감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요. 저 부터라도 보다 학습하고 이해를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초등학교는 물론, 유아 교육, 중등학교 교사까지 양성하여 "교육 종합대학교"를 지향하고 있고, 지역 사회를 위한 평생교육원, 국제어학 교육원, 방과 후 학교 자원센터, 원격 교육연수원, 나아가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서의 교육박물관을 만들어 민족 문화 유산의 자료 수집과 보존, 전시 등을 하려는 만큼 그런 문화, 환경 의식의 고양의 의지가 있습니다.

서로 기회의 장을 열어 주어야 하고 전문 단체와의 협력이나 지원이 필요하니 장차 좋은 기획으로 제안해 주시지요.

박 : 덧붙여 이 곳 여건이 허락하시면 먼저 건축·환경의 융합, 소통, 창의를 위한 특강 형식의 '건축아카데미'를 함께 개최해 보실 의향은?

신 :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건축 환경을 결국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고, 건축문화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추후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시지요.

박 :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고 많은 업무가 있으실 테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개별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연락드리고 싶네요.

구 : 앞으로는 건축물의 완성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잘 유지 관리 되어야 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면담 초기에 잠깐 언급되었지만, 현 캠퍼스의 관리 체계는 어떤지요?

신 : 현재는 자체 관리 담당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ELEV.같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위탁을 하고요. 시대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되고 있으니 장차 예상은 어렵네요.

박 : 아마 곧 에너지절약 등급이나 성능 등급 같은 것이 보다 폭 넓게 시행되면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신 :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 근래 녹색산업이나, 그린 빌딩이나 하는 말들이 많지요. 혹시 '그린 캠퍼스'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에너지 절감 계획이나 환경성능평가, 혹은 자연에너지 활용 같은...

신 : 사실 아직은 활발하지는 못 해요. 요즘 건물들에는 대부분 유리를 많이 쓰는 추세이고 멋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녹색성장이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몇만 낼 수는 없겠지요. 아무래도 초기 투자가 만만치 않아서... 그래도 일반인들이 의지를 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분들이 앞장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경제나 활용 효과, 도입할 가치나 의미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 제도, 공공기관과 함께 하시면 더 효과적이겠죠. 기술적으로는 스마트 캠퍼스 구축, 즉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최첨단 교육 서비스, 정보 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구상 중입니다.

박 : 그렇군요. 초기 단계이나 공통 목표로 다 함께 하다 보면 신나고 보람될 것 같습니다.

구 : 또 다른 측면의 그린 캠퍼스를 위한 실천 의사는?

신 : 그린의 개념과는 다른 측면입니다만, 지역 사회에 캠퍼스 개방을 통한 활용입니다.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함께 하는 것은 좋으나, 시설물 훼손이나 쓰레기 방치 등 스스로 공간을 가꾸는 의식, 상대에의 배려심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이 없이 학교 자체의 예산만으로 관리 운영하기에는 늘 부족한 형편이지만 어렵게 진행시키고는 있습니다.

박 : 선진적 시민의식을 위한 기회비용이고,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에 대한 느낌과 함께 사회나 정부, 그리고 건축사에게 바라는 점 있으신 것은?

신 : 평소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분야라 서툴고 어색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그러한 점에서 보람이 있었다는 느낌입니다. 잘 모르던 것을 조금이라도 접하고 알게 되면 뿌듯하듯이 말입니다.

문의하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주제넘은 얘기일 수도 있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더군요. 끝이라고 하시니 그럼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원칙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훌륭한 분들, 난관을 극복하고 그래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듯이, 커져만 가는 양극화, 편법이나 부정, 기득권이나 소위 가진 자들의 불공정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이 어느 쪽에서든지 개선되어 그것이 사회적 자본화가 되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먼저 도덕적, 전인적 인재를 길러 내야 할 교직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정부는, 그런 신뢰 사회, 협동의 공동체를 위한 공정한 감시자 역할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투명한 게임의 룰이 사회 신뢰의 잣대가 될 테니까요.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에서 일반화 될 수 있는 장,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체감이나 결집력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조직적 성찰의 결여나 집단주의, 권리나 이익, 명예 등의 독점적 유혹 등이 일어나기 쉽죠. 사회의 변화를 보면 그 기득권과 과보호를 스스로 깰 수 있는가가 어쩌면 사회적 스트레스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직업적 역사를 가진 건축사 여러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건축 관련 사항을 혼자 다 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는 주체적 생각으로 스스로 행동반경을 넓혀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잘 해 오시던 분들이리라 쓸데없는 잔소리가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 정말 고마우신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시니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자세한 말씀 주시어 큰 감사드립니다. 

· 인터뷰 및 정리 : 박찬정, 구만열